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～(다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는 사대부가(士大夫家)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, (나)와 (다)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.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, 사대 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 서, 행위,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 식이 드러나기도 한다.

① (가)에서 ‘시냇가’에 ‘정관’을 ‘걸어 놓’는 것과 (나)에서 ‘앞내’의 ‘고기’를 낚고 ‘뒷뫼’의 ‘약’을 캐는 것에서,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.

② (가)에서 ‘금오산’의 푸름을 보며 ‘충신’을 연상하고, (나)에서‘전려’에 돌아와서도 ‘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’는 것에서,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.

③ (가)에서 ‘청계변’의 광경을 ‘무릉원’으로, (나)에서 ‘청풍’과 ‘명월’을 다른 것이 ‘대할’ 수 없는 ‘즐거움’으로 여기는 것에서,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.

④ (가)에서 ‘부녀자들 함께 즐김’이 ‘이에서 더’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, (다)에서 ‘풍월’을 ‘벗’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.

⑤ (가)에서 ‘썩힌 간장’이 ‘오늘’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, (다)에서 ‘백구’와 ‘백년’을 놀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.